

캐롯 품은 한화손보... 車보험 외형 확장·수익성 제고 나서

1분기 車보험 매출 3000억 넘고 3월 매출 1100억, 월기준 역대최대 車 손해를 하락, 장기보험 성장 등 '수익성 확보' 합병의 최종 과제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캐롯손해보험 흡수 합병이 자동차보험 시장 재편의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업계 전반에서 적자 구조를 드러낸 상황에서 한화손보가 디지털 고객과 온라인 채널 확보를 위해 외형 확대에 나선 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합병의 상징성보다 이 전략이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쏠린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해 10월 1일 캐롯손보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나채범 대표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로 보유하던 캐롯손해보험을 성공적으로 흡수합병해 6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디지털 역량 중심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병의 1차 성과를 고객기반

확대와 디지털 역량 내재화로 규정한 셈이다.

실제 통합 효과는 외형 지표에서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한화손보는 이날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매출이 3000억 원을 넘어섰고, 3월 한 달 매출은 1100억원 이상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CM(사이버마케팅) 채널 매출은 통합 전 월평균 약 370억원에서 올해 1분기 월평균 4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시장점유율도 통합 전 5.6%에서 올해 1분기 6.0%로 상승했다. CM 채널을 통해 유입된 고객이 장기보험 T M(텔레마케팅)과 대면 채널로 이어지면서 장기보험 매출도 통합 이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향후 과제는 한화손보가 합병을 통한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녹록지 않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진정한 승부가 놓여 있는 셈이다.

이번 합병은 업계 구조 변화도 보여줬다. 2025년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한화·메리츠·흥국·롯데·에이스 등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9.4%로 전년보다 1.1% 포인트(p) 상승한 반면, 약사·하나·캐롯 등 비대면전문사의 점유율은 5.6%로 0.8%p 하락했다. 디지털보험 수요 자체가 사라졌다고보다, 독립 디지털보험사 모델이 기존 손보사 내부의 온라인 채널 전략으로 흡수·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화손보의 캐롯 합병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수익구조 전환이다. 1분기와 3월 매출 등 초기 외형 성과는 확인됐지만, 합병의 최종 평가는 자동차

보험 손해를 부담을 얼마나 낮추고 확보한 고객 기반과 디지털 채널을 장기보험 성장으로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느냐가 숫자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화손보는 캐롯이 쌓아온 온라인 가입 기반과 모바일 중심 고객 접점, 디지털 운영 역량을 전자 경쟁력으로 흡수해 자동차보험 판매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캐롯손보와의 시너지는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과 데이터 역량을 전사에 확산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축적한 디지털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보험에서도 효율성과 성장 기반을 함께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평균 3.19%' 저축은행, 예금 금리 올린다

경제 변동성 확대... 수신확보 나서 조은저축, 정기에금 최고 3.55% HB저축, 비대면 예금 3.53% 등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선보이며 수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 환율 상승, 증시 변동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달 대비 0.13%p(포인트) 올랐다.

대표적으로 가장 높은 예·적금 금리 수준을 보이는 곳은 조은저축은행이다. 조은저축은행의 '정기에금' 금리는 연 최고 3.55%다. 이어 HB저축은행이 '비대면 회전정기에금' 상품으로 3.53%의 금리를, DH저축은행이 '정기예금단리식', '정기에금복리식'으로 각 3.52% 수준의 금리를 내세우고 있다.

조흥저축은행의 'e-정기에금', 페퍼스저축은행의 '페퍼스 회전정기에금',

'회전정기에금', 상상인저축은행 '뱅크뱅크 정기에금' 등의 상품들도 연 최고 3.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존보다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나선 곳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정기에금 상품 금리를 최대 3.3%로 인상했다. 기존 최대 연 3.2%에서 0.1%p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기준의 정기에금 상품에 적용된다.

다음저축은행도 'FI 하이브리드 정기에금' 상품의 금리를 올렸다. 기본금리 연 2.0%(세전)에 만기 유지 시 추가금리 1.5%p를 제공한다. 예금 상품의 만기만 지키면 최대 연 3.5%(세전)의 금리를 받아볼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가입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다.

저축은행들이 최근 환율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자금 운용처를 찾는 고객을 다시 유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증시로 빠져나갔던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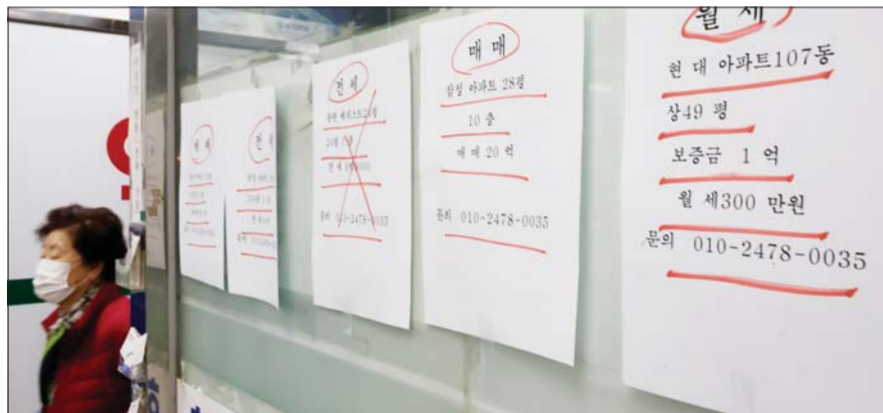
을 다시 유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수신은 전년 말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신 축소로 인해 수신까지 축소된 것도 있지만,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금 이동이 있었던 것도 수신 잔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업계가 흑자전환을 이룬 것도 한몫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의 당기순이익은 4173억원으로 전년 말 보다 8405억원 증가했다. 수신 확보를 통해 이자이익을 늘려 영업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행보로 분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수신 확보는 아니라는 입장이 나온다. 이번 예금 금리 인상은 고객을 다량으로 유치하려는 것보다 빠져나간 자금을 되찾아 오는 '방어'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업권 관계자는 "여전히 여신 확대 운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를 통해 수신을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신 기자 wotjs4187@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가구 매입

지난달 월 기준 역대 최대실적 기록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가구를 매입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월평균 매입 물량도 884가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7649가구에 달한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

업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3월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685건을 심의해 698건을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3만7648건으로, 전체 신청 중 약 61.6%가 가결됐다.

이들에게는 주거·금융·법률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총 6만1462건으로, 경·공매 지원, 대출 지원, 공공임대 제공, 긴급 주거지원 등이 포함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금융위,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표준화된 위험관리체계도 신설한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거래에는 계정 분리 및 다중 승인체계를 통해 사고 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빙썸 오지급 사태 이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5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

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된 '긴급대응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5개 거래소 가운데 3개 거래소는 잔고대사(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 및 검증하는 절차)를 24시간 마다 실시하고 있었다. 검증 빈도가 지나치게 길어 오지급 등 사고 발생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잔고대사 과정에서 오지급 등 사고로 인해 큰 과실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래 차단조치' 등 대응 체계도 불충분했다.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에 대해 분기별로 회계법인 실사를 받고 있으나,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외부 공개하는 등 형식적인 공시에 그쳤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긴급대응반 점



/금융위원회

검결과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면서 "24시간 거래가 이뤄짐에도 장부와 지갑 상 고객자산을 상시 대사하는 시스템 운영은 미흡하며, 인적·시스템 오류 대응 등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DAXA는 4월 중으로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우리은행, 15개 지점 '100년 점포' 지정

창립 127주년 기념 브랜딩 사업

우리은행은 창립 127주년을 기념하고자 100년 경과 점포를 대상으로 브랜딩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및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은행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확장하고자 추진된다.

먼저, 오는 4월 ▲종로금융센터 ▲서울시청금융센터 ▲인천지점 ▲전주금융센터 ▲동래금융센터 등 100년 이상 영업을 유지한 15개 점포를 '100년 점

포'로 지정한다. 해당 점포에는 역사와 전통이 새겨진 현관과 조형물을 설치해 오랜 세월 지역 금융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해 온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고객을 향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우리은행 고유의 시각적 요소를 한층 강화한 '헤리티지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 고객 접점 전반에 도입한다. 새 디자인은 쇼퍼백과 명함 등 고객이 일상에서 접하는 물품에 우선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역사적 깊이와 브랜드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안승진 기자